

##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4전-5)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세대가 가장 어려운 세대라고 말합니다. 저는 6.25세대가 가장 어려운 여건에 태어난 세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한순간, 해방 5년 후, 1950년 6월 25일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발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100일이 좀 지나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고혈로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밤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이불로 창문을 가리고 미음을 먹으며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1953년 휴전 협정 후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6.25 세대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의 학대도 학대지만 바로의 명령으로 수많은 히브리 아들이 나일강에 던져져 악어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히브리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배후에서 조용히 모세 한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친모로부터 히브리 교육, 바로의 공주로부터 궁중 교육,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목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노예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본문에서 첫째,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모세의 사명, 둘째, 모세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지난날 궁중에서 화려한 망토를 입고 백마를 타며 섬김을 받던 데서 지금은 광야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양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활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양을 치는 일이 익숙해져 광야 생활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모세는 오늘도 모세가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Horeb)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꽃’은 날카로운 창날 같은 모양으로 타오르는 화염인데 섭씨 1,000도 이상이 되므로 덤불을 쉽게 태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처음에는 목동들이 놓은 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데 이상하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상하다 싶어 가까이 가서 보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출 3:4)

40년간 누구도 모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는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름은 자신의 존재입니다. 모세는 존재 자체가 잊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시덤불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보이기도 하시고, 이상(vision)으로 보이기도 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로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셨습니다.

현재 모세는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는 소망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비전과 소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불꽃’은 죄를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뜻합니다(사 10:17).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바로에게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불꽃입니다. 반면에 바로에게는 심판의 불꽃입니다.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입니다.

‘떨기나무’는 시내(Sinai) 광야 전역에서 흔하게 자라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은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땅에 자라는 나무입니다(창 3:18). 가시덤불은 쓸모 없는 나무로 사람들을 찌르고 고통을 줍니다. 여기에서 ‘떨기나무’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서로 가시가 되어 찌르고 찢려 상처를 주고받다가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는 불꽃에 던져집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칠 배나 뜨거운 풀무 불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 사람이 풀무 불에 타죽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 불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산책하는 것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석방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단 3:19~27).

여기에서 풀무 불에서 세 사람과 함께 걸은 한 사람은 성육신하시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다(단 3:26).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은 모세가 불꽃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5)**

“가까이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은 ‘여호와와 사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출 3:2, 4, 6).

‘여호와와 사자’는 성육신하시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은혜로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 편에서 보면 광야는 거룩한 땅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소망을 앗아간 곳입니다. 체념을 심어준 곳입니다. 평범하지도 못해 처가의 양을 치는 슬픔이 많은 곳입니다. 모세는 이곳을 한 번도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다.

그러면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됩니까? 이곳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은 어디나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은 어디나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직장과 대학과 삶의 터전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같은 건물이지만 예배드리는 곳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선 땅이 거룩하므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은 먼지나 모물이 묻어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특히 모세의 신은 양 땀을 40년간 났았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보다 더 냄새가 나고 더러웠

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룩한 곳에서는 신을 벗습다. 따라서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려면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신을 벗어야 합니까?

### 첫째, 과거의 흔적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소개하는 이력서를 쓰는데, 이력(履歷)이란 발로 걸은 경로입니다. 신이 다닌 흔적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이력, 흔적과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생각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 때의 그 고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진실한 회개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가 되기 이전의 삶과 단절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딤후 6:11~12절)고 했습니다.

### 둘째, 자기 권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었습니다(룻 4:7). 그리고 당시 주인은 노예의 신을 벗겼습니다. 포로도 제일 먼저 허리띠와 신발 끈을 풀도록 합니다. 이것은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넘기는 자기 권리 포기를 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주님께 모든 권리를 이양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Lordship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며 삶 전체를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갈 2:20).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려놓음을 말합니다. 내려놓음은 겸손을 뜻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 셋째, 불순종의 신을 벗어나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특수한 땅입니다. 신을 벗어나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수 1:3)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수 5:15)고 했습니다. 가나안은 신발 바닥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복종으로 입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따라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불신과 불순종의 신을 벗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이제 가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 첫째,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I Am the God...)”(출 3:6)

하나님은 모두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I Am the God of your father), ‘아브라함의 하나님’(I Am the God of Abraham), ‘이삭의 하나님’(I Am the God of Isaac), ‘야곱의 하나님’(I Am the God of Jacob).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를 달리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모세의 하나님, 현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출 3:7-8)

하나님은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my people)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노예에게는 노예근성이 있습니다. 노예는 지성미가 없습니다. 생각이 천박합니다. 위기를 넘기기 위해 변명합니다. 자부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오늘 잘 먹고 놀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노예의 철학은 내일이 없는, 지금 인생을 최대한 enjoy,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노예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

니다. 가까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아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신음을 보고 듣고 아서서 독생자까지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 해결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6-10)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노예 백성에서 구원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 둘째,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 3:9)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now, go!)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예로 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 사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라.”(now, go.) 이에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모세는 반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냅니까?”(출 3:11)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 형편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쫓겨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애굽이고,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제 발로 애굽에서 가서 죽으라는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모세도 한때는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있었

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평범하고 소박하게 한 아내의 남편과 좋은 아빠로 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모세는 나니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셋째,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출 3:12)

모세는 “이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응보다는 호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호응보다는 ‘제가 누구인데 애굽에 갑니까?’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도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바로를 상대할 때도 혼자 상대하도록 하시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애굽에 갈 때도 동행하시고, 바로를 만날 때도 동행하시고, 출애굽할 때도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함께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신약에 이 사상의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20절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는 한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하신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항상 함께하셔서 모세에게 말이 필요하면 모세의 입이 되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요한 웨슬리의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에 요한 웨슬리(John Wesley)가 남긴 세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마지막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다”였습니다. 마지막 말은 웨슬리가 임종을 맞아 한 말이라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죽기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위대함은 그가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심을 믿고,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와 재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예, 주님 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 역사를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16세기에 마르틴 루터를 부르셔서 종교개혁으로 복음 진리를 굳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17세기와 18세기에 필립 스펜너(Philip Spener)를 부르셔서 독일의 경건 운동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 웨슬리(John Wesley)를 부르셔서 18세기 영국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부르셔서 각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평신도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전임 사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호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함께하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할 때 누구든지 전무후무한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호응했을 때 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에 호응했을 때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과 소망을 따라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